

## 성경 D & H

### 2. 입다의 딸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Q: 개역성경에는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십니까? A: 아닙니다. 입다의 딸은 죽지 않고 평생 처녀로 지냈습니다.

사사기 11장의 재판관 입다, 1-10절 배경, 요르단 동쪽 길르앗 출신의 재판관, 서자 출신, 아버지의 친자들이 그를 내쫓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침략,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옴

11-28절, 입다가 암몬(지금의 요르단) 자손과 설전을 벌임, 이스라엘이 300년 전에 정복해서 얻은 요르단 부근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자 No! 드디어 29절부터 전쟁이 벌어짐

입다의 서원: 30-31, 싸우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외동딸이 그를 맞으러 나옴(34-35)

35: 내가 돌이킬 수 없다. 36: 서원대로 하십시오. 37: 두 달 동안 산에 가서 울다 오겠습니다. 그 이유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virginity), 이것을 개역은 처녀 죽음이라고 표기함, 개역개정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그녀가 죽은 것으로 이해함. 인신 제사 가능

39: 두 달 뒤 서원대로 행함. 그 결과 그녀는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 개역개정은 죽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로 또 오역. 킹제임스 성경은 콜론(:)이 있다. 영어에서 콜론은 앞 문장의 결과를 부연 설명하는 데 쓰인다. 즉 그가 서원을 행한 결과 그녀가 처녀로 평생을 지내게 된 것이다.

40: 여인들이 시집가지 못한 입다의 딸을 위해 일 년에 나흘씩 애곡함

####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해석은 No!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 퇴치 명령(레18:21, 20:2-5, 6-7): 거룩한 자(7)

암몬 자손의 행습(왕상11:7), 렘32:32-35, 인신 제사가 유다 패망의 원인, 므낫세(왕하21:6)

이런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한다면 말이 될까? No!

입다의 서원은 그냥 한 것이 아니다. 29절에 보면 그는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서원을 한 것이다. 창22장의 아브라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try) 위해 선한 의도로 시험한 것이다(히 11:17). 더욱이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히11:18-19).

그러므로 창22로 입다를 매도하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니다.

만일 입다의 서원이 실수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고 등은 허공의 메아리

그러면 입다는 서원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인신제사 서원을 했을까?

31절의 의미를 잘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인다.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그것.. 그러면 입다는 짐승이 나올 것을 기대했을까? 개나 고양이 혹은 양, No! 그는 사람 특히 그의 종이 나올 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러 했을까? for a burnt offering, as가 아니라 for이다. for는 '대신한다'는 뜻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태우는 헌물 대신 그것을 드리겠다. 그러면 태우는 헌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의 번제 헌물은 완전히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신33:10; 막12:33). 즉 입다는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평생토록 주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딸이 평생토록 처녀로 살며 주님께 헌신함

그러면 레위기 27장의 전적으로 봉헌된 자를 죽이라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29)

이것을 입다의 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전적으로'를 왜 첨가했나? 레27:21, 28, 29, 민18:14의 6회, 여기의 히브리말은 전적으로 멸하기 위해 주님께 바쳐져서 무르거나 팔 수 없음을 뜻함. 28-29의 No, None 등이 '전적으로'를 내포함. 주께로 전적으로 구별되어 거룩함(21).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사례(수6:18, 21)

민21:2-3의 가나안 족속 멸절, 삼상15:21의 아말렉 족속 멸절 등

이런 사례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존엄하신 법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영원토록 그분의 저주 아래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런 구절은 결코 인신 제사 용, 입다의 딸 등에 적용될 수 없다.

결론: 입다의 딸은 죽지 않고 처녀로 일생을 보냈다. 인신 제사 No, 입다는 믿음의 사람(히11:32).